

일본의 석유화학 제품별 시장 분석

1. 최근 업계 동향

1) 내수감소를 수출로 만회하기는 것은 한계

- 버블붕괴를 계기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일본의 에틸렌생산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1999년과 2007년은 약770만 톤 규모이었음
 - 에틸렌생산이 피크에 달했던 그 시기에는 특히 아시아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음
 - 1990년대 초에 10%였던 일본의 에틸렌환산 수출비중은 1995년경에는 약25%, 아시아 금융위기가 끝나가던 1999년경에는 30%까지 상승하였고 금융위기 직후에는 한때 40%를 넘는 수준까지 급증했음
- 이렇게 내수감소를 수출로 충당하며 가동률을 유지하는 판매구조는 2000년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와 능력 확대에 차이가 생기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유력한 경쟁사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었음
 -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신흥국과 원료생산국의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부상한 외국의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 고기능제품으로 전환하려는 일본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졌음
 -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고기능화는 기업의 수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에틸렌 플랜트의 가동률 유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함
 - 제품의 전체적인 생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생산을 지속하는 범용품은 시장변동과 수입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산시설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있음

2) 업체 수익성

- 일본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는 대부분 매출규모로 압도하는 범용석유화학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음
 - 여전히 일본 업체가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아크릴노니트릴(acrylonitrile)과 카프로락탐(Caprolactam)과 같은 일부 제품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대부분의 일본 석유화학업체는 2000년대 초까지 전자제품 재료를 중심으로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며 높은 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었음
 - 일찍이 일본 전자회사들이 세계를 선도하던 때 일본의 석유화학 회사들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형태로 전자 부품 분야에 진출했었음
 - 그 후 실제 수요처가 한국과 대만 등으로 교체되었지만 일본 업체는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수출로 대응하며 엔고 역풍을 견뎌왔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국내생산+수출’이 어려워진 범용제품 분야에서는 종래부터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허브 역할을 해 온 싱가포르의 입지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
 - 또한 스미토모(住友)화학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Petro-Rabigh사와 같이 생산입지와 원료를 수정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있음
- 결국 일본의 종합화학 업체는 범용제품에서 고부가가치제품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의 생산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분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입지와 원료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기능성 재료사업의 중심이었던 전자제품 분야는 일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미 기술혁신이 이용자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자 논리에 의한 고기능화가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미 시장이 신흥국 수요 중심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제공하는 고기능 제품이 효율성 제고를 통한 최종 어플리케이션의 가격하락 추구에 기여하는 종류인지, 아니면 최고급 제품을 겨냥한 제품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시장 규모

2) 국내 수요 동향

-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의 에틸렌환산 석유화학제품 국내 수요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생산설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2011년 국내 수요가 큰 폭으로 움직였음
 - 2011년 6월 이후에 생산설비 복구와 긴급수입으로 국내 수요가 재해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 그러나 한때 수요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활한 부자재 조달을 우려하여 발생한 과잉발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2011년 말에 다시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음

- 결국 2011년 전체 내수는 513만 톤(전년대비 0.7%감소)을 기록하며 2010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회복세는 위기 이전 대비 90% 수준에서 일단 멈춤 것으로 보면 됨
 - 2012년 에틸렌환산 내수는 생산 감축에 따른 재고량 감소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종 수요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1.1%감소하는 508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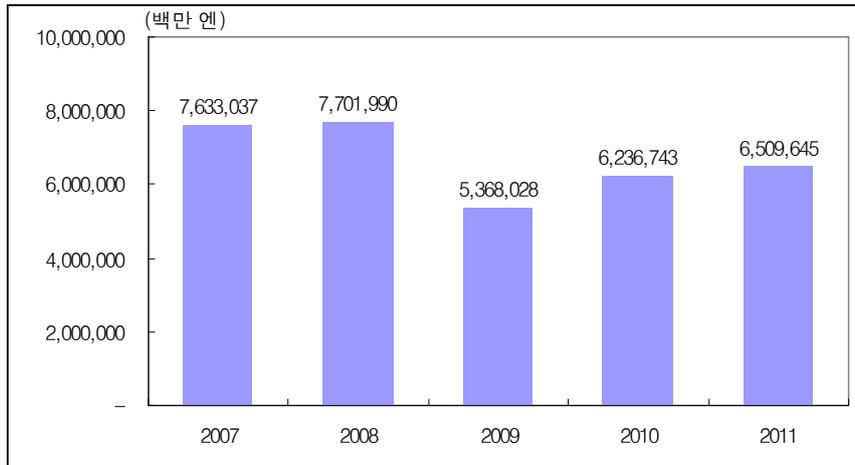
<표1> 에틸렌환산 내수/수출입/생산량 추이

	단위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2012년 (예상)	2011년 상반기 (실적)	2011년 하반기 (실적)	2012년 상반기 (예상)	2012년 하반기 (예상)
내수	(천 톤)	5,167	5,133	5,075	2,733	2,400	2,547	2,528
수출	(천 톤)	2,377	2,076	1,879	1,002	1,075	905	947
수입	(천 톤)	542	735	727	441	293	400	327
생산	(천 톤)	7,001	6,475	6,227	3,293	3,182	3,052	3,174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 자료를 근거로 미즈호코포레이션은행 산업조사부 작성자료 인용

- 한편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일본 석유화학제품의 총 생산금액(생산량×출하단가)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6조 5천억 엔 정도인 것으로 추산됨
 - 2008년 약8조 엔에 육박하던 생산금액이 2009년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펼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생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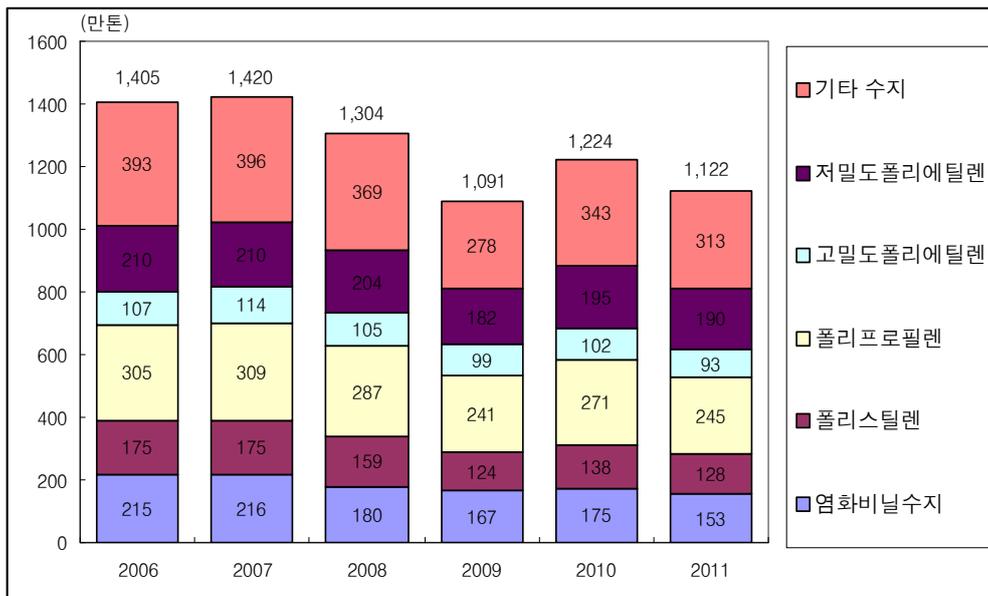
<그림1> 일본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추이(금액)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합성수지는 종류도 많지만 성질도 다양해서 용도에 따라 특성을 살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음
 - 이들 수지의 대부분은 석유화학으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범용수지’로 불리는 대표적인 수지로는 저밀도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틸렌, 염화비닐수지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범용수지가 전체 합성수지 생산량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2> 일본 합성수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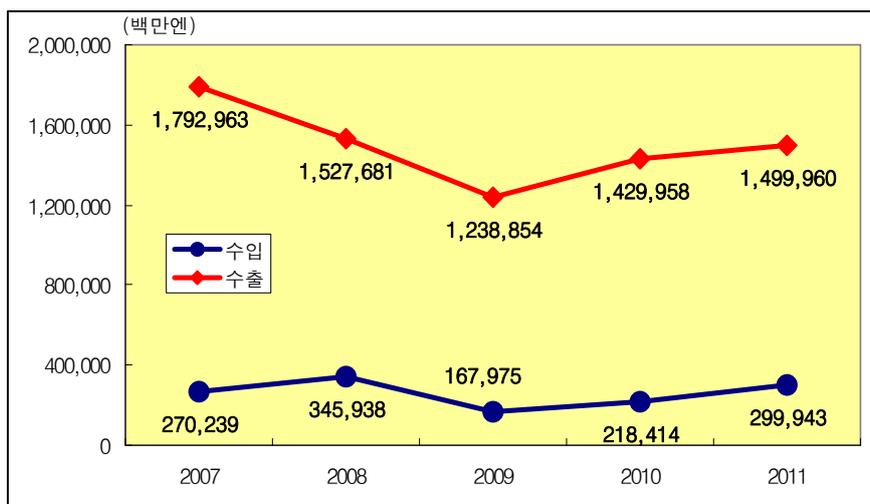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일본의 합성수지 국내 생산은 2011년 생산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1,222만 톤을 기록하였음
 - 2011년은 모든 범용수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가장 실적이 좋지 않았던 2009년 수준에 육박하는 수준을 유지했음
 - 건설 자재로 많이 쓰이는 염화비닐수지(PVC)는 2010년 175만 톤에서 153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용도가 많은 폴리프로필렌은 102만 톤에서 93만 톤으로 줄어들었음

2) 수출입 동향

- 재해 피해를 입은 직후였던 2011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급감하고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균형이 크게 악화되었음
 - 그러나 그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외수출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
 - 그 결과 2011년 석유화학제품 총 수출액은 2010년보다 다소 증가한 약1조 5천억 엔을 기록함
 - 반면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총수입은 2010년 약2,200억 엔에서 2011년 약3,000억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3> 일본 석유화학제품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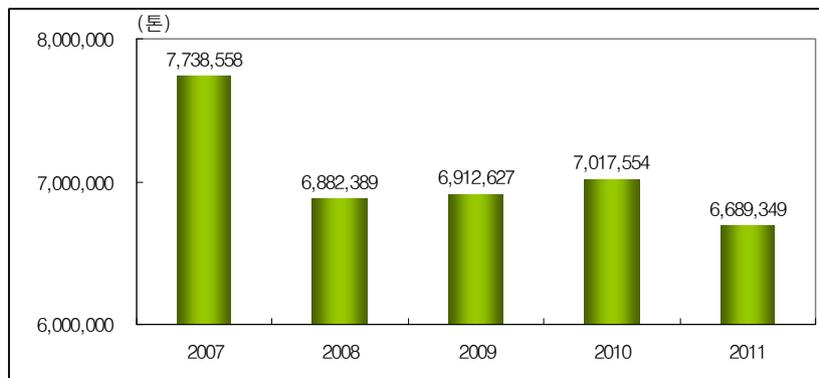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3. 제품별 시장 점유율

1) 에틸렌

-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로 쓰이는 에틸렌의 2011년 일본 국내생산량은 약669만 톤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했음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생산 감소와 더불어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그 결과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보다 낮은 수준의 실적을 올리는데 그쳤음
- 앞으로 당분간 석유화학 분야의 수요 감소로 에틸렌시장 전체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원유가 상승과 엔고의 여파로 일본 에틸렌의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슈퍼마켓에서 쓰는 비닐봉지 등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 에틸렌 생산량이 머지않아 650만 톤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림4> 일본 에틸렌 생산 추이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시장점유율에서는 미츠이화학(三井化学)이 16.6%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증가하면서 2년 만에 미츠비시화학(三菱化学)을 누르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음
 - 그러나 2011년 미츠이화학은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이 아니라 생산수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이 주요했음
 - 반면 미츠비스화학은 주력 공장인 가시마(鹿島)사무소(茨城県 소재)가 지진과 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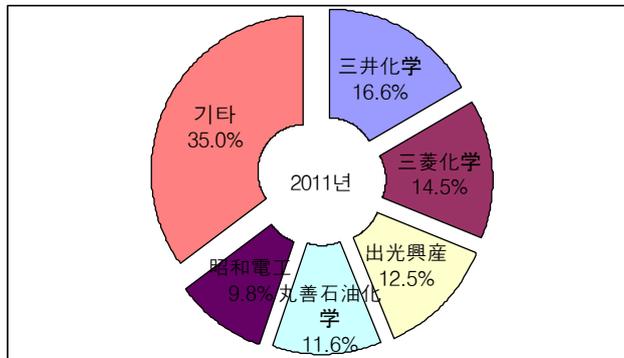
의 피해를 입어 약2개월 동안 가동이 중지되면서 2011년 시장점유율이 전년대비 3.6%포인트 감소했음

<표2> 과거 5년간 업체별 시장점유율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三菱化学	三菱化学	三井化学	三井化学	三菱化学
2	三井化学	三井化学	三菱化学	三菱化学	三井化学
3	出光興産	出光興産	出光興産	出光興産	出光興産
4	丸善石油化学	丸善石油化学	丸善石油化学	丸善石油化学	丸善石油化学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그림5> 2011년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 한편 2005년 이후 줄곧 업계 3위를 지켜오고 있는 이데미츠고산(出光興産)은 2011년에 전년대비 0.5% 감소한 12.5%를 기록함
 - 이데미츠고산은 지난 2009년에 미즈이화학과 치바(千葉)공장의 에틸렌설비 운영을 통합한 이후 수요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음
 - 따라서 2011년은 ‘미즈이·이데미츠 그룹’의 시장점유율이 0.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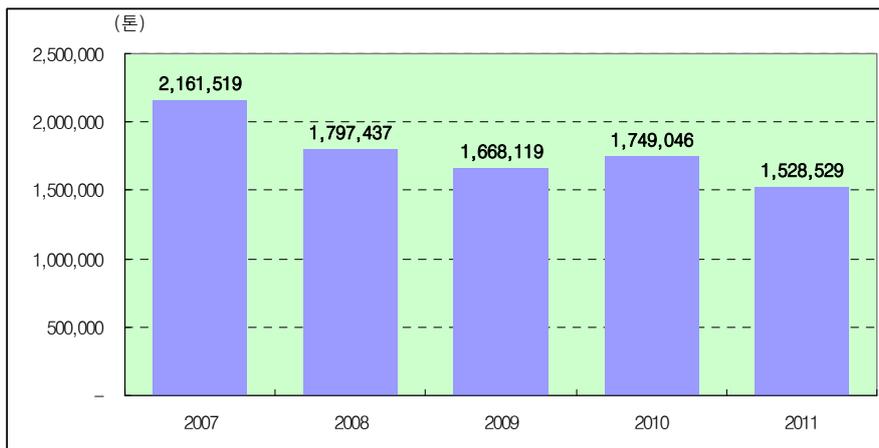
- 일본 에틸렌 업계 4위 마루젠(丸善)석유화학은 2011년에 전년대비 0.7%포인트 시장점유율이 낮아졌음
 - 치바(千葉)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동일본대지진으로 동경 이북 지역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오이타(大分)에 주력 공장을 가지고 있는 쇼와전공(昭和電工)은 지진 영향을 받지 않아 2011년 시장점유율이 1.5%포인트 늘어났음

- 북미지역에서 저렴한 신형 가스인 셰일가스(shale gas)를 원료로 한 에틸렌의 판매가 확대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본 업체로는 시장점유율 자체보다는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미 미츠비시화학은 가시마(鹿島)공장의 에틸렌 설비 2기(基) 중 1(基)를 2014년에 폐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임
 - 해당 공장이 실제 폐기되면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은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결국 과잉설비를 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일본 에틸렌 업계 전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염화비닐수지

-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일본의 염화비닐수지 총생산량은 전년대비 13.0%감소한 약153만 톤을 기록하였음
 - 국내생산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상위 3개 회사의 순위 변동은 없었으나 동 일본대지진과 2011년 11월에 발생한 도소(東ソー) 南陽공장의 폭발화재 사고와 미츠비시화학의 염화비닐 사업 완전 철수 등으로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생겼음

<그림6> 염화비닐수지 생산량 추이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염화비닐수지는 수도관을 비롯한 공업용 파이프와 전자재, 식품포장과 문구 등의 용도로 널리 쓰이는 범용수지임

-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석유화학업체인 신에츠(信越)화학 등의 생산이 정지되면서 서일본(西日本)에 위치한 다른 업체들의 가동률이 한때 상승하기도 했었음
- 그러나 2011년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품도 약11만 톤에 달하는 등 일본 국내업체의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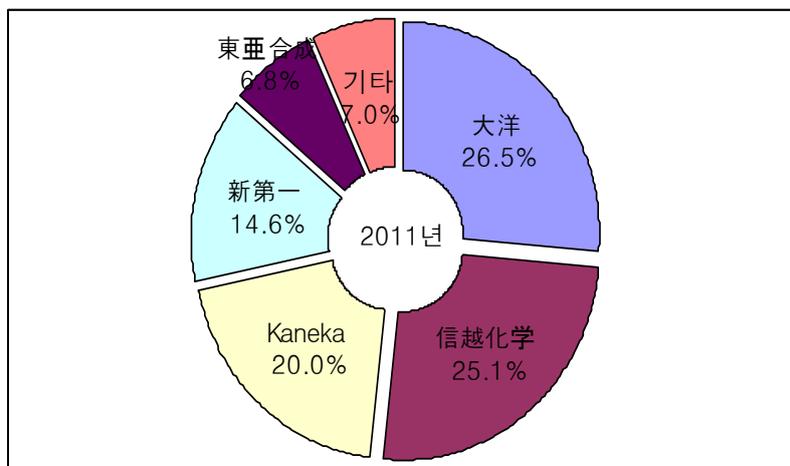
<표3> 과거 5년간 업체별 시장점유율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다이요(大洋)비닐	다이요(大洋)비닐	다이요(大洋)비닐	다이요(大洋)비닐	다이요(大洋)비닐
2	신에츠(信越)화학	신에츠(信越)화학	가네카(Kaneka)	신에츠(信越)화학	신에츠(信越)화학
3	가네카(Kaneka)	가네카(Kaneka)	신에츠(信越)화학	가네카(Kaneka)	가네카(Kaneka)
4	브이텍(V-Tech)	브이텍(V-Tech)	브이텍(V-Tech)	브이텍(V-Tech)	신제일(新第一)비닐

자료) 日經産業新聞社(2013), ‘日經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 도소(東ソー) 산하의 다이요(大洋)비닐은 2011년에도 업계 1위를 지켰으나 시장점유율은 크게 하락하였음
 - 도소(東ソー)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원료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중국으로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염화비닐수지의 원료를 만드는 도소(東ソー)의 南陽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그림7> 염화비닐수지 2011년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日經産業新聞社(2013), ‘日經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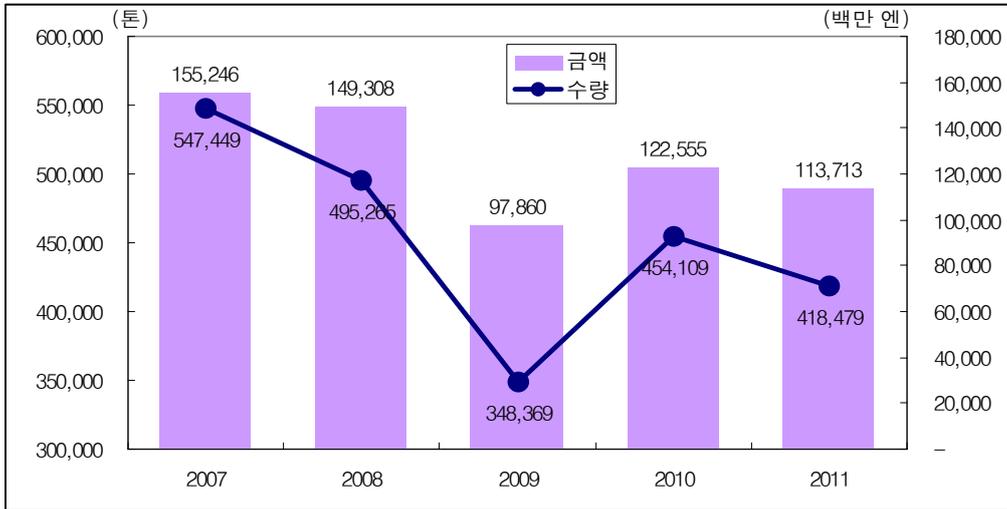
- 업계 2위 신에츠(信越)화학공업은 동일본대지진으로 유일한 생산거점인 가시마(鹿島)공장이 약 2개월간 가동이 정지되었음
 - 그러나 미츠비시화학과 동아합성(東亞合成)의 공동출자로 만들어졌던 브이텍(V-Tech)이 2011년 3월 전격적으로 해산함과 동시에 미츠비시화학이 염화비닐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다소 상승하였음
- 업계 3위 가네카(Kaneka)도 가시마(鹿島)공장이 피해를 입어 약1개월 반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음
 - 서일본의 거점은 생산을 계속했으나 시장점유율을 전년대비 1.7%포인트 하락한 20.0%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11년 시장점유율을 대폭 늘린 것은 도쿠야마(Tokuyama)의 자회사인 신제일(新第一)비닐이었음
 - 다른 업체와는 달리 재해를 입지 않았고 비교적 원활한 원료 확보 덕분에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생산거점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음
 - 미츠비시화학의 사업철수에 힘입어 전년대비 4.5%포인트 증가한 14.6%를 기록하였음
- 동아합성(東亞合成)은 브이텍(V-Tech)이 해산한 이후 원래 자사 설비였던 가와사키(川崎)공장을 인수해서 생산을 지속한 결과, 2010년과 같은 6.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가네카(Kaneka)로부터의 위탁생산이지만 가동률은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ABS수지

-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수지의 2011년 일본 국내 생산량은 2010년에 비해 3.7% 감소한 약42만 톤이었음
 - 업계 상위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2011년 상반기 일본 국내 자동차생산 정체와 엔고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각사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ABS수지는 충격과 각종 약품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형이 비교적 손쉬운 장점도 있음

- 그래서 자동차의 내장 부품에 주로 쓰이고 복사기와 TV 등의 전기제품 본체에도 활용됨

<그림8> 일본 ABS수지 생산 추이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2011년 일본의 ABS수지 수입량이 3만2천 톤을 초과해 국내생산량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를 기록하였음
- 지속된 엔고의 여파로 주로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고, 동일본대지진과 태국 홍수로 일본 자동차생산이 타격을 입어 ABS수입 수요가 감소했음

<표4> 과거 5년간 업체별 시장점유율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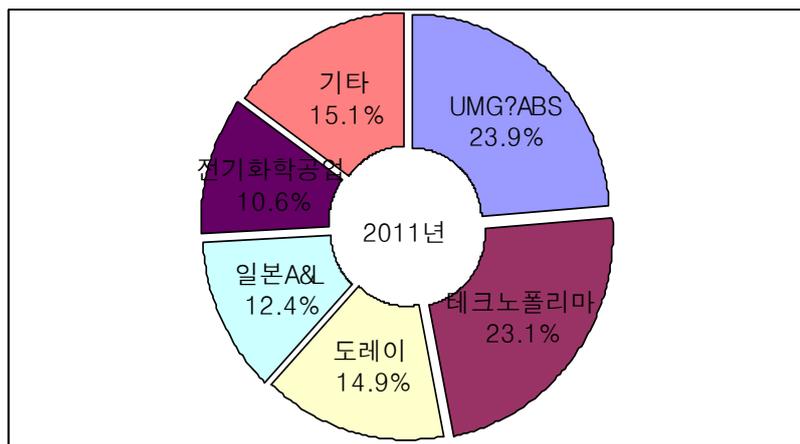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UMG · ABS	UMG · ABS	UMG · ABS	Technopolymer	UMG · ABS
2	Technopolymer	Technopolymer	Technopolymer	UMG · ABS	Technopolymer
3	도레이(東レ)	도레이(東レ)	도레이(東レ)	도레이(東レ)	도레이(東レ)
4	일본A&L	일본A&L	일본A&L	일본A&L	일본A&L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에서 작성

- 국내 상위 2개 회사가 일본 국내 ABS시장을 놓고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순위변동은 없었으며, 우베흥산(宇部興産), 미쯔비시레이온(三菱レイヨン) 그리고 미국의 GE가 함께 출자해서 만든 UMG · ABS가 2010년에 이어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켰음

- UMG·ABS의 2011년 시장점유율은 23.9%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상승했음
- 특히 이 회사는 내열성과 내구성을 높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업계 2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JSR의 자회사인 테크노폴리마(Technopolymer)로 2011년 시장점유율은 2010년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23.1%를 기록하였음
-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재 분야에서는 선전했으나 자동차생산 감소에 따른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동일본대지진에 인한 생산설비 손상은 없었으나 수입제품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다소 줄어들었음

<그림9> 일본 ABS수지 2011년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日經産業新聞社(2013), ‘日經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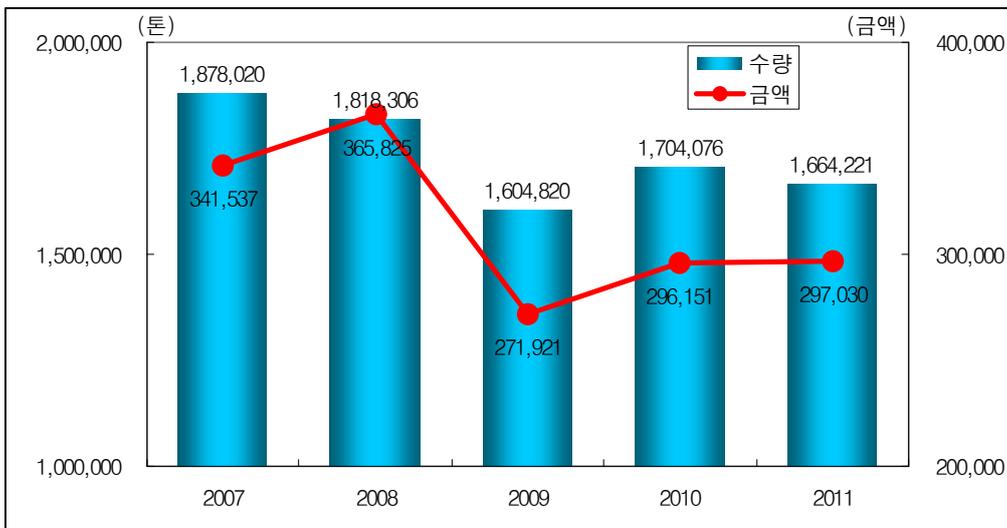
- 3위 도레이(東レ)는 치바(千葉)공장이 한때 조업을 중단한 것이 전체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점유율은 2010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14.9%를 기록하였음
- 한편 스미토모(住友)화학과 미즈이(三井)화학이 출자한 일본A&L은 0.2%포인트 늘어난 1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4위를 지켰고, 전기화학공업은 시장점유율 10.6%(2010년 대비 0.4%포인트 하락)로 업계 5위에 올랐음
- 2011년 시장점유율 변동에 가장 주요했던 요인은 엔고에 따른 수입품 증가였으며, 앞으로도 엔고현상에 따른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자동차생산과 전기제품의 생산량에 크게 좌우되는 ABS수지 수요는 일본 국내에서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의 가격 폭등으로 이미 각사가 연이어 가격인상을 발표하고 있어 사업환경은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에서의 생산과 판매에 주력하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

4) 저밀도폴리에틸렌

- 2011년 일본의 저밀도폴리에틸렌 국내 생산량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66만 4,221톤이었음
-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지, 샴푸 용기 포장지, 전선피복 등에 주로 사용되는 범용수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수출입도 활발한 제품임
- 2011년 생산 실적은 일본 국내경기 침체와 지속된 엔고와 함께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2009년 수준으로 떨어졌음

<그림10> 저밀도 폴리에틸렌 생산 추이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미쯔비시화학(三菱化学)과 쇼와전공(昭和電工)의 사업통합회사인 일본폴리에틸렌이 2003년 설립된 이후 9년 연속 업계 1위를 지키고 있으나 2011년 시장점유율은 30.8%로 전년대비 2.4%포인트 하락했음
-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동일본대지진을 들 수 있는데, 가시마(鹿島) 공장이 타격을 입었고 미쯔비시화학의 에틸렌 설비가 2011년 5월 중순까지 가동이 중단되었음

- 특히 원료 에틸렌의 조달 물량이 줄어들어 생산을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업계 1위 일본폴리에틸렌의 생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태국 등에서 저렴한 수입 제품이 대거 일본 국내로 유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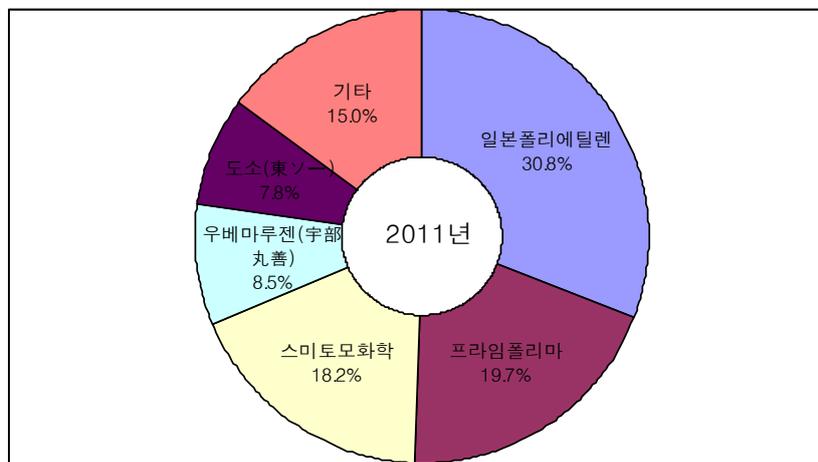
〈표5〉 과거 5년간 업체별 시장점유율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일본폴리에틸렌	일본폴리에틸렌	일본폴리에틸렌	일본폴리에틸렌	일본폴리에틸렌
2	Prime Polymer	Prime Polymer	Prime Polymer	住友化学	Prime Polymer
3	住友化学	住友化学	住友化学	Prime Polymer	住友化学
4	일본unicar	일본unicar	일본unicar	宇部丸善폴리에틸렌	宇部丸善폴리에틸렌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 미츠이(三井)화학과 이데미츠(出光)홍산의 공동 출자회사인 프라임폴리마(Prime Polymer)는 2년 연속 스미토모화학을 제치고 2위 자리를 지켰음
- 출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 출하량이 줄면서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19.7%를 기록하였음

〈그림11〉 2011년 저밀도폴리에틸렌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 2012년 이후에는 지속되고 있는 엔고 여파로 수입품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L-LDP로 불리는 저밀도폴리에틸렌의 수입품이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일본 국내시장으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음
 - 범용용도이면서 가격이 일본 국내제품의 40%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일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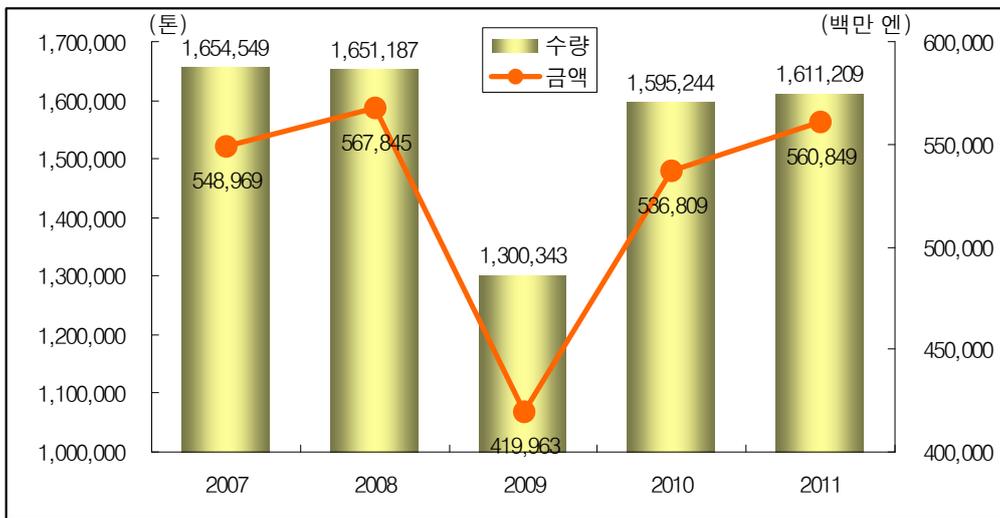
고객이 저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제품의 수입물량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따라서 일본 업체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며, 범용제품의 생산능력을 줄이고 고기능 제품을 늘리는 방침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5) 합성고무

- 타이어와 튜브 등에 사용되는 합성고무의 2011년 일본 국내 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약161만 톤이었음
- 자동차용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전선 등 그 이외 분야의 출하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간의 플러스를 기록하는데 그쳤음
- 업계 상위 그룹에 변동이 없었으나 시장 점유율 1위인 JSR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든 반면 2위 일본ZEON은 시장점유율이 약간 늘어났음

<그림12> 일본 합성고무 생산 추이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JSR은 2011년 11월에 저연비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합성고무, S-SBR(용액중합SBR)을 제조하는 요카이치(四日市)공장에서 생산능력을 증강하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생산을 시작했음
- 반면 창틀에 주요 쓰이는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EPDM)를 생산하는 가시마(鹿島)공장이 재해로 2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되었음

- 해외거점으로부터의 공급과 재고 출하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하였으나 시장점유율 유지에는 실패하여 2010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26.7%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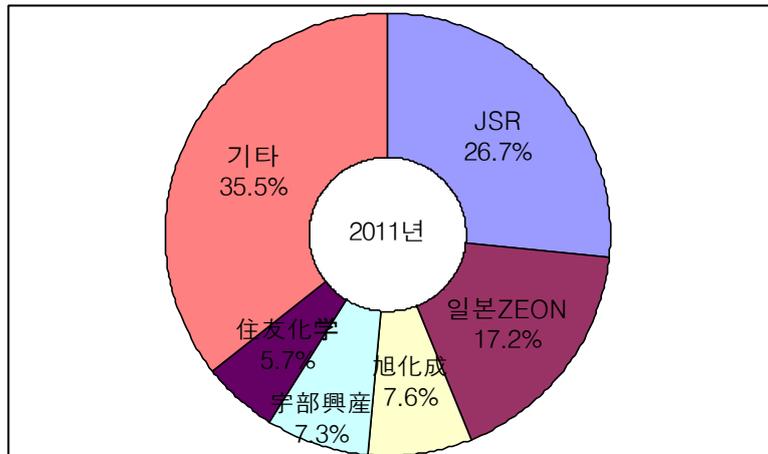
<표6> 과거 5년간 업체별 시장점유율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JSR	JSR	JSR	JSR	JSR
2	일본ZEON	일본ZEON	일본ZEON	일본ZEON	일본ZEON
3	旭化成	旭化成	旭化成	旭化成	旭化成
4	宇部興産	宇部興産	宇部興産	宇部興産	宇部興産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 2위 일본ZEON은 재해 대책으로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 국내 출하를 늘리는 전략을 전개했음
- 결국 자동차 부품관련은 감소를 했지만 타이어용 출하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0.3%포인트 늘어난 17.2%를 기록했음

<그림13> 2011년 합성고무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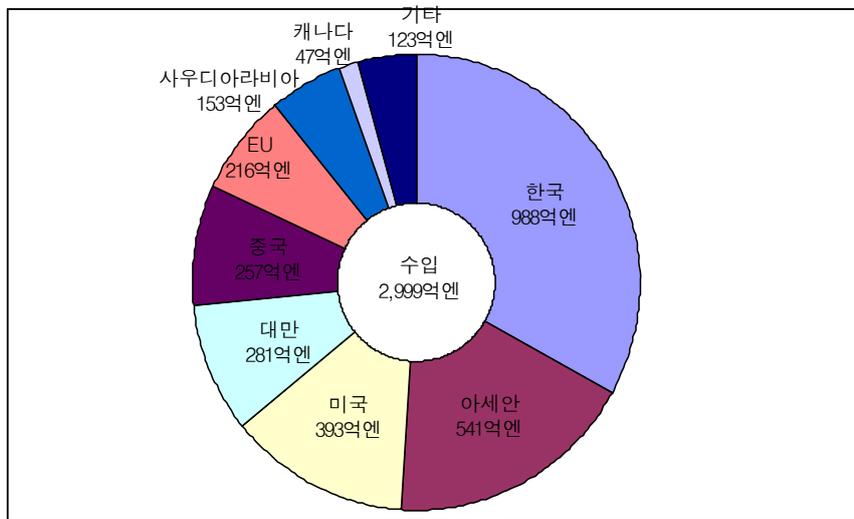
- 2011년 업계 3위 아사히가세이(旭化成)는 타이어용 출하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전년대비 1.0%포인트 하락한 7.6%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데 그쳤음
- 그러나 7.3%를 기록한 4위 우베고산(宇部興産)과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줄이는데 성공하였음
- 한편 부타디엔(butadiene)고무를 주력 생산품목으로 하고 있는 우베고산은 지난해에 이어 업계 4위를 지켰으며, 스미토모화학도 2011년에 변함없이 5위 자리를 유지했음

- 앞으로의 시장점유율 경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입품 동향이 될 것으로 보임
 - 2011년 수입 물량은 2010년 대비 17% 증가한 20만 930톤을 기록했는데, 재해 영향으로 원료확보에 나선 수요가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수입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이었음
 - 합성고무가 주로 쓰이는 곳은 자동차로, 타이어는 물론 엔진 주변 부품의 내열성 고무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일본 자동차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들이 신규설비 투자는 해외에서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일본 합성고무 업체도 해외생산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며 언제까지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임

4. 한국 석유화학제품의 일본시장 진출

- 2011년 일본이 석유화학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32.9%에 해당함
 - 금액으로는 988억 엔으로 2위 수입지역인 아세안보다도 약450억 엔 많은 수준임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2009년 636억 엔에서 2010년 690억 엔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1,000억 엔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화학제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그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의 한일 무역구조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양국 간에 분업구조가 명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범용수지를 중심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능성소재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최근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파라크실렌, 스틸렌, 기타기초유분 등은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14> 2011년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국가별 수입 규모



자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에서 작성

- 이러한 양국 간의 분업구조의 결과 한국의 2011년 석유화학제품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35.91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일본에 대해 범용수지를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무역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따라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에서도 특히 기능성소재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http://www.jpca.or.jp/4stat/00index.htm>)
2. 日経産業新聞社(2013), ‘日経シェア調査’
3. 미즈호코포레이션은행 산업조사부 내부 자료